

【논문】

청·러 국경분쟁 초기 동북 지역 청 水軍에 관한 연구

홍은*

目 次

- I. 서론
- II. 청·러 국경분쟁 초기 전쟁 양상의 변화
- III. 전선 건조의 추진과 변경
- IV. 수군 병력의 보강 방안
- 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러 국경분쟁 초기 청의 동북팔기 내 수군에 관한 연구이다. 당시 양국의 전투가 주로 水戰이었다는 것과 러시아의 남하가 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국 수군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함에도 이때의 수군에 대한 연구는 육군에 관한 연구보다 미진한 상태이다. 이는 무엇보다 개방된 자료 속에 육군과 관련된 내용이 많고, 수군과 관련된 내용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대 후반부터 中國第一歷史檔案館이 공개한 자료 속에 동북팔기의 수군 보강과 관련된 도니 당안과 어혈리 당안, 衛周祚 당안 등의 자료가 포함됨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 개방된 당안 자료와 기존의 자료를 교차 검증하여 청 동북팔기 수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전황의 변화를 연구했다. 먼저 청과 러시아의 분쟁 초기 수전 양상을 분석한 뒤 러시아 수군에 대항하기 위한 청 수군의 변화를 전선 건조와 수군 병력 보강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특히 본 연구는 당안 속에 나타난 동북지역의 지휘관, 병부와 허버이암반 등 중앙부서간의 조율을 통해 수군 체계가 만주구사나 솔론구사 위주에

* 경북대 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서 우전초하 위주로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청은 우전초하와 비슷한 편제로 구성된 조선군의 전선과 수군 병력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결국 조선의 수군 병력을 통해 분쟁 초기의 승기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곧 동북지역 여러 곳에 수사영이 창설되는 동기가 되었으며, 이 수사영은 훗날 분쟁 후기에 청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기반이 되었다.

주제어: 청·러 국경분쟁: 청 水軍; 동북팔기: 中國第一歷史檔案館.; 우전초하(漢軍八旗); 도니 당안: 어할리 당안: 衛周祚 당안

I. 서론

청·러 국경분쟁은 1652년부터 1689년까지 루스차르국(이하 러시아)과 청나라 사이에 있었던 국경분쟁으로, 러시아의 시베리아 원정대가 청의 동북 지역 여러 소수민족을 약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분쟁 초기에는 청과 러시아 모두 이 동북 지역에 대해 이제 막 통치력을 확장하거나 혹은 개척하려고 했기 때문에 양국의 국경선이라는 개념이 열은 상태였다. 이 분쟁은 초기와 소강기 및 후기로 나뉘는데, 초기(1652~1658)와 후기¹⁾는 양국의 정부가 직접 이 분쟁에 관여하여 여러 차례 큰 전투가 있었던 시기이며, 소강기는 시베리아 원정대와 東北八旗²⁾ 간에 소소한 국지전만 있었던 시기이다. 이 분쟁은 1689년 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네르

1) 분쟁 소강기와 후기에 대해 청과 러시아의 관점이 다르다. 청의 관점에서 분쟁 소강기는 1658년 이후 러시아군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알바진으로 다시 공격해 온 1680년대 초까지이고, 분쟁 후기는 알바진전투로부터 분쟁이 종식된 1689년까지이다. 이와 달리 러시아 관점에서 분쟁 소강기는 1658년부터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은 원정대 중 하나인 니키프르 체르니코프스키(?~1675)의 시베리아 원정대가 다시 알바진을 점령한 1665년까지이며, 분쟁 후기는 1665년부터 1689년까지를 가리킨다.

2) 이 시기 동북 지역의 팔기는 대략 묵둔 지역, 그 주위에 주둔한 팔기와 지금의 흑룡강성, 길림성 지역에 주둔한 팔기로 나뉘었다. 이 중 후자의 팔기는 강희연간에 정식으로 흑룡강의 암바장긴과 길림의 암바장긴이 지휘하는 팔기로 재편되었다. 본 연구에서 동북팔기는 연구대상인 후자의 팔기만을 지칭한다.

친스크조약을 맺으면서 종식되었는데, 이 조약을 통해 비로소 동북 지역에서 양국 간의 국경선이 확정되었으며, 양국 모두 이곳을 근대적 국경선에 대한 개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네르친스크조약은 당시 승전국인 청에 유리한 조약이었다.³⁾ 이후 근대에 들어와 러시아제국은 아이훈조약(1858)을 통해 우수리강 동쪽 연해주 일대를 러시아 영토에 편입하는 등 양국의 국경을 러시아에 유리하게 변경했다. 이 문제는 20세기 중반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 사이의 중·소 국경분쟁으로 이어졌는데, 이 분쟁은 전 세계에 핵전쟁의 위기를 느끼게 한 사건이 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2005년 양국이 우수리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 조약을 맺으며 해결되었다.⁴⁾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 여러 국가의 학자들은 양국 사이 국경분쟁의 시발점인 청·러 국경분쟁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청·러 국경분쟁 후기와 네르친스크조약을 중심으로 연구가 집중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무엇보다 이 시기와 관계된 자료가 많이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21세기에 접어들어 청·러 국경분쟁 초기와 관련된 한국과 러시아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러시아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 소장된 시베리아 원정대의 기록을 공개하고, 한국에서는 분쟁 초기 조선군 파병 사건인 羅禪征伐과 관련된 기록이 실린 관찬서와 문집들이 공개되었으며, 그 일부는 고전번역원 등을 통해 번역작업도 마쳤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는 분쟁 초기 청 정부의 분쟁에 대한 인식과 대응 등 내부적 논의 과정과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 문제는 2010대 중반부터 中國第一歷史檔案館에서 청·러 국경분쟁에 관한 당안을 공개하기 시작함에 따라 서서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3) 러시아의 귀족 등은 섭정 소피아 공주(1657~1704)에게 이 조약 속 국경선 조항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것은 곧 그녀가 실각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4) 아이훈조약 이후 청이 멸망하고 중화민국 시기 군벌 통치를 거쳐 일본이 동북 지역을 식민 통치했으므로 동북의 국경선을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에야 이 국경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중국과 소련 간의 이견이 상당히 컸다. 이는 1969년 마침내 진바오도(珍寶島) 충돌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소련이 핵전쟁까지 염두에 두었는데,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무마되었다. 이후 양국은 1991년에 국경선을 확정하고, 2005년에 세부 조항까지 합의하여 조약을 맺음에 따라 이 국경분쟁은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중국제일역사당안관의 당안 자료 개방을 통해 분쟁 초기 이후 청이 동북 지역에 대한 통치력을 높인 것이 분쟁 후기의 승패에 영향을 줬음을 밝히는 연구⁵⁾가 가능했다. 그리고 분쟁 후기에 승패를 결정짓는 데 공헌을 한 우전초하(만문: ujen cooha, 한문: 漢軍八旗 혹은 漢軍旗)가 분쟁 초기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동북 지역에 주둔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연구⁶⁾도 가능했다.

현재 분쟁 초기 연구 중 가장 빈약한 부분은 수군 혹은 수전에 관한 연구인데, 분쟁 초기의 주요 전쟁터가 모두 강 지역이었다는 점과 시베리아 원정대가 주로 강을 통해 이동했다는 점에서 분쟁 초기의 상황을 보다 세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로의 활용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수군 상황과 양국 사이 수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분쟁 초기부터 동북 지역 즉 동시베리아 지역의 소수민족과 러시아 사이에 주요 전투지 중 하나인 우수리강이 결국 중국과 러시아 사이 최종적인 국경선의 기준점이 되었다는 점 또한 전근대시기부터 우수리강 지역에서 활동한 양국 수군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연구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양국의 수군이 모두 임시로 구성된 수군이었던 점으로 인해 기존의 중국 측 사료 즉 실록이나 방략 등에 기록이 적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아울러 러시아와 한국의 문헌에서도 육군의 활동에 비해 수군의 활동에 관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도 이러한 연구 경향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수군의 활동은 분쟁 초기에 관한 연구 중 간단히 언급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제일역사당안관이 2010년대 후반부터 청 동북팔기의 수군과 이를 육성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당안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이 당안 자료를 러시아와 한국의 자료와 교차 검증하면 분쟁 초기 청과 러시아 수군과 그 활동을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당안 자료에는 동북 지휘관들과 중앙의 관원들 및 청 황제의 생각, 청에서 판단한 러시아 수군의 장점 등이

5) 송인주, 2018, 「清朝의 順治~康熙年間 黑龍江 유역 통합과정과 ‘吉林將軍體制’의 성립: 샤르후다-바하이 부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50.

6) 祁今馨, 2019.12, 「黑龍江漢軍의 成立と 拡充について」, 『近現代東北アジア地域史研究会News Letter』.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국제일역사당안관의 당안 자료와 한국, 러시아의 문헌 등에서 수군 활동과 관련된 기록을 교차 검증하여 분쟁 초기 양국 수군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뒤 그 특징과 활동을 전선 건조와 수군 병력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만주족의 인명과 한자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 만주어로만 기재된 타민족 출신인 사람의 인명 및 동북 지역의 지명은 강의 명칭을 제외하고 만주어식 발음으로 표기할 것이고, 조선과 한족의 인명, 동북 지역 외의 한반도와 중국 내 지명은 한자어로 표기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될 衛周祚 당안이 滿漢合璧文 형태의 당안이 아닌 단독 만문 당안 형식이므로 한자어를 알 수 없는 지명이나 인명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기준을 세웠다. 이 당안에 한자어가 확인되는 만주족의 인명이나 지명은 만주어와 한자어를 병기한다.

II. 청·러 국경분쟁 초기 전쟁 양상의 변화

1. 분쟁 초기의 전쟁 양상과 양국의 수군 비교

현재 공개된 중국과 러시아 및 한국의 청·러 국경분쟁과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초기와 후기 모두 주요 전투지역은 강과 그 연안이었다. 분쟁 초기의 주요 전투로 아찬스크 전투(1652), 松花江 전투(1654, 제1차 나선정벌), 쿠마르스크 전투(1655), 尙堅烏黑 전투(1657), 송화강-흑룡강 전투(1658, 제2차 나선정벌), 송화강-庫爾澗 전투(1658)가 있고, 이외에 작은 국지전이 여럿 있었다. 러시아군이 요새를 세워 전투했던 아찬스크(지금의 하바롭스크)는 흑룡강과 우수리강의 합류 지점 근처의 강변 지역이고, 쿠마르스크는 黑龍江의 상류 지역이며, 야전을 벌였던 상견오 혹은 중국 흑룡강성 佳木斯市 근처로 이곳 역시 송화강 강변에 있는 지역이다. 참고로 분쟁 후기의 전투지역인 알바진은 아르군강 유역이었다. 한국과 중국 및 러시아의 문헌을 참고하여 분쟁 초기 주요 전투의 육전과 수전 여부를 표로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청·러 국경분쟁 초기 전투 양상

전투명	전투 양상
아찬스크 전투(1652)	육전
松花江 전투(1654, 제1차 나선정벌)	육전+수전
쿠마르스크 전투(1655)	육전
尙堅烏黑 전투(1657)	육전+수전일 것으로 추정
松花江-黑龍江 전투(1658, 제2차 나선정벌)	수전
松花江-庫爾澗 전투(1658)	수전일 것으로 추정

이렇듯 분쟁 초기 수전의 비중이 육전에 못지않게 높았으나, 수전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 이러한 연구 경향의 배경에는 청과 러시아의 수군이 모두 임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찬 기록이 거의 없었던 점의 영향이 컸다. 당시 양국의 수군은 모두 수전을 벌여야 할 때 육군이 임시로 전선에 올라 전투를 치르는 형태였다.

먼저 분쟁 초기 청이 동북팔기에 정식으로 수군을 창설하기 이전 청과 러시아의 수군을 표로 비교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청·러 국경분쟁 초기 동북 지역 청과 러시아 수군 비교

청 동북팔기의 수군	러시아 수군
군대 구성: 만주구사, 솔론구사 수군: 육군이 수군으로 활동 전선: 者皮船 항구: 송화강 유역의 江港	군대 구성: 코사크족, 러시아군 수군: 해적, 육군이 수군으로 활동 전선: 카락(내해용), 깬리온(내해용) 항구: 아찬스크, 쿠마르스크 등의 江港

먼저 당시 동북 지역의 청 수군은 동북 지역이 터전이거나 駐防에 거주하는 만주구사(만주팔기)와 솔론구사(솔론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이 육군으로 활

7) 청이 동북 지역의 소수민족을 솔론구사 혹은 만주구사에 편입시킨 것은 이들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 시기 동북 지역 소수민족들은 청과 러시아 양국으로부터 모두 조공

동하다가 때에 따라 수군으로 투입되는 체계였다. 전선은 소나무 등의 목재로 건조한 소형의 者皮船⁸⁾을 사용했다. 이러한 동북팔기에 소속된 수군은 전문적으로 수군 훈련을 받지 않은 병력이었다. 당시 청군 가운데 전문적인 수군 훈련을 받은 병력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우전초하(만문: ujen cooha, 한문: 漢軍八旗)에 속한 병력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은 南明征伐(1644~1664)에 주로 파견되었는데, 특히 투입된 전장이 鄭成功(1624~1662)이 이끄는 남명 수군과의 전투였다. 따라서 청은 이러한 남쪽 전황으로 말미암아 우전초하에 소속된 수군을 동북 지역에 파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러시아의 수군도 임시로 조직되었다. 본래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동시베리아 지역에 해군을 창설하고자 했으나 본토 내에서 부동항을 찾기가 어려웠으므로 이 계획이 계속 무산되었다. 이처럼 해군이 아직 정식으로 창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국 내에서 강과 바다 지역의 항해에 능숙한 코사크족⁹⁾에게 주로 수전을 맡겼다. 그리고 전선은 코사크족이 사용해 온 소형선을 활용했지만, 유럽의 선박 제조 기술을 가져와서 카락¹⁰⁾과 깬리온¹¹⁾의 방식으로 전선을 건조했다. 다만 강에서 운용되므로 바다 항해용 전선보다 작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양국의 임시 수군 전력을 비교해 보면, 러시아의 수군이 좀 더 전문적인 수군에 가까웠다. 그 이유는 먼저 러시아의 수군 속에 포함된 코사크족의 병력은 오랜

을 요구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부족의 이해관계에 따라 청 혹은 러시아에 귀의했다. 이에 청은 동북 지역에 대한 통치력을 공고하게 할 목적으로 소수민족들을 지배계층인 팔기의 기인에 편입시켜 회유하려고 했다. 출처: 松浦茂, 2006, 『清朝의 아몰 정책と少數民族』,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24-226쪽; 이훈, 2018, 「17세기 중엽 청-러시아의 충돌과 흑룡강 유역의 부족민」, 『열상고전연구』 65; 이훈, 2018, 「1635년 후금의 와르카 공략」, 『동양사학연구』 142; 陳鵬, 2018, 『清代東北地區“新滿洲”研究(1644-1911)』, 50-53쪽.

- 8) 만주족(여진족)이 강을 건널 때 사용한 소형 통나무배이다. 나선정벌 때 활용되었다. 『世祖實錄』 권13, 세조 4년 6월 3일 기미; 『成宗實錄』 권244, 성종 21년 9월 26일 을해; 『孝宗實錄』 권14, 효종 6년 4월 23일 정축.
- 9)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고 있던 동슬라브계 민족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의 혈통과 기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그 주장이 서로 다르다. 코사크 민족은 원래 기마민족이었지만 해적질을 통해 약탈도 많이 하여 항해술에 능숙했다.
- 10) 15세기에 지중해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범선이다.
- 11) 카락의 후신인 전선으로, 바다에서 해전을 위해 설계된 서양의 전선이다. 배 위에서 안정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船首樓(배 앞머리에 있는 선루)와 갑판의 높이를 이전보다 낮추었다.

기간 동유럽과 시베리아 지역의 강과 바다에서 해적 활동을 통해 풍부한 수전의 경험이 있어서 전문적인 수군과 비슷한 수준의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 원정대를 통해 모피 공급이 늘어나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강에서의 운용을 고려하여 중형 카라과 깰리온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머스킷¹²⁾과 대포를 지급하기도 했다. 당시 러시아군은 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중대형 전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항구를 갖춘 요새를 강 유역 곳곳에 구축했다.

2. 청 내 동북팔기의 수군에 대한 논의

위와 같이 분쟁 초기에는 청 동북팔기의 수군이 전선과 병력 문제에서 모두 러시아 수군보다 열세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첫 수전인 송화강 전투에서 선봉 부대의 패퇴로 나타났다. 동북팔기는 이 송화강 전투를 통해 자국의 수군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보고하여 대응책을 내놓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닝구타 암바장긴(한문: 寧古塔昂邦章京) 샤르후다(만문: šarhūda, 한문: 沙爾虎達, 1599~1659)는 송화강 전투에 앞서 어느 정도 수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전투를 벌여 수전에서는 패하고 육전에서 이겨 전세를 만회했다. 당시 샤르후다는 선봉부대인 수군에 조선의 조총수를 배치하고자 하였는데, 조선군의 지휘관인 邊巖(?~?)이 전선의 크기를 문제 삼아 이를 반대했다. 변급은 청의 전선인 자피선이 소형 전선이라 물살에 쉽게 흔들리므로 조총수가 그 위에서 전투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¹³⁾ 그가 반대한 원인의 핵심은 명중률의 저하로, 이 문제는 16~17세기 조총과 대포 등 화기의 대표적 단점인 반동 문제¹⁴⁾와 연관이 있다. 조총과 대포의 반동 문제는 낮은 명중률과 더불어 특히 대포의 경우 포격할 때의 반동으로 인한 선박 파손의 문제가

12) 머스킷은 조총을 개량한 것이다.

13) 『孝宗實錄』 권14, 효종 6년 4월 23일 정축.

14) 대포의 반동 문제는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영국이 駐退復座機를 개발하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지 일으키기도 했다.¹⁵⁾

샤르후다는 결국 송화강 전투에서 동북팔기 내의 수군을 선봉으로 세웠고, 이 수군은 러시아 수군에게 대패했다. 패전 후 육지로 급히 상륙한 동북팔기의 수군을 추격하던 러시아군들이 매복한 조선의 조총부대에 의해 대량 사살되면서 전세가 뒤집혔다. 이렇게 상황이 뒤바뀌자 러시아의 패잔병들은 재빨리 자신들의 전선에 승선하여 요새로 도주했다.¹⁶⁾ 이때 동북팔기의 수군과 육군은 모두 이를 추격하여 격퇴하지 못했고, 이는 곧 러시아군이 재정비하여 다음 전투인 쿠마르스크 전투를 대비할 빌미를 제공했다.

샤르후다는 송화강 전투 후 수전의 패배 원인을 전선의 크기 차이와 그에 따른 화기의 활용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러시아군은 코사크족이 기존에 활용해 오던 소형 전선 외에도 강과 바다 모두 항해할 수 있는 중·대형 전선인 카락과 깔리온을 활용했으므로 선상에서 조총이나 대포를 활용하기에 용이했다. 이에 반해 동북팔기의 수군은 소형 전선인 자피선만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동양과 서양에서는 모두 많은 함포를 배치하기 위해 중형 이상의 크기와 튼튼한 재질¹⁷⁾을 가진 전선이 필요했다. 아울러 조총은 소형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물살 같은 외부 요인을 줄여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역시 중·대형선이 필요했다. 이러한 명중률 저하의 문제점을 샤르후다에게 지적한 사람이 바로 파병된 조선군의 지휘관 변급이었다.

이와 더불어 샤르후다는 송화강 전투에서 동북팔기가 소유한 전선의 기동성이 동북 지역 강에서 약하다는 것도 파악했다. 본래 소형 전선은 비록 화력전을 할 때는 불리하지만 중·대형선보다 속도가 빨라 첩보나 등선백병전을 할 때는 유리했다. 그런데 동북팔기가 소유한 자피선은 소형임에도 범선인 러시아군의 중·대형 전선보다 속도가 느렸던 까닭에 요새로 퇴각하는 러시아군을 추격하는 데 실

15) 이러한 문제로 당시 대포를 활용했던 동아시아 3국에서는 중형 이상의 전선에서 화기를 주로 사용하거나 선박 기동에 화기를 매달아서 사용하기도 했다.

16) 『孝宗實錄』 권14, 효종 6년 4월 23일 정축.

17) 조선의 판옥선 경우 대포의 반동을 이겨내기 위해 소나무를 사용하여 건조했는데, 이때 소나무 목재를 海水에 담그는 등의 특수 처리를 했다.

패했다. 본래 자피선은 여느 소형 전선과 마찬가지로 기동성 있는 전선이긴 하나 이 전선이 주로 사용된 두만강이나 압록강 또는 송화강 중·상류에 비해 주요 전투지인 흑룡강이나 송화강 하류의 물살이 더 거세어 기동성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피선을 건조하는 데 사용한 목재의 종류와 선체 구조 및 전선의 크기가 기동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¹⁸⁾

이렇듯 청 수군의 전선이 가진 약점으로 인해 러시아군은 추가 피해 없이 요새로 복귀하여 재정비했고, 청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로 몽고구사를 동북으로 파견하여 다음 전투를 준비하였다. 양군은 1655년 3월에 흑룡강 상류에 있는 쿠마르스크 요새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청군이 패하자, 이해 여름부터 러시아군은 본격적으로 남하를 시도해 흑룡강을 거쳐 송화강과 우수리강 유역까지 수로를 통해 진출했다. 이때 수많은 동북 지역의 소수민족(혹은 여진 씨족) 마을들이 러시아군에게 항복했지만,¹⁹⁾ 이 상황에 대해 샤르후다는 보고만 받을 뿐 대책을 세우기 힘든 상황이라 그는 이를 중앙에 긴급히 전달했다. 이 보고를 받은 청 정부는 도니(만문: aisin gioro doni, 한문: 愛新覺羅 多尼, 1636~1661)²⁰⁾를 동북에 파견하여 이

18) 자피선을 건조하는 데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재는 동북 지역에서 나는 자작나무 혹은 소나무로, 자작나무로 배를 건조하는 서양 전선이나 소나무로 배를 건조하는 조선과 목재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만일 자피선이 자작나무로 건조한 통나무배라고 가정하고, 이를 자피선의 크기 문제와 함께 살펴보면 크기가 크지 않을 경우 여느 소형 통나무배와 마찬가지로 물살에 약하다. 만일 자피선이 소나무로 건조한 통나무배로 가정하면 선체가 무겁고, 선체 구조가 평저선이나 첨저선이나에 따라 수심의 영향을 받거나 배의 기동성에 영향을 받는다(『孝宗實錄』 권14, 효종 6년 4월 23일 정축; 김재근, 1989, 『우리 배의 역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재근, 1996, 『우리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 이 항복을 두고 청에서는 러시아군의 겁박으로 동북 지역 소수민족들이 굴복한 것으로 해석했고, 러시아는 청의 과도한 공물 수취에 대항하여 소수민족들이 러시아군에 귀의한 것으로 해석했다(도니, 1655, 「題爲羅刹入境侵擾請派官軍進剿事」, 北京:中國第一歷史檔案館; 제임스 포사이스 저, 정재경 역, 2009, 『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 솔 출판사; 피터 C. 퍼듀 저, 공원국 역, 2012, 『중국의 서진: 청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사』, 길 출판사; 박지배, 2018, 「17세기 중반 러시아의 동북아진출과 '나선정벌'의 의미」, 『歷史學報』 240; 윤옥, 2023, 「清的 對러시아 政策的 起源, 1644-1676」, 『역사와 세계』 64).

20) 도니는 누르하치의 15남 豫親王 도도(만문: aisin gioro dodo, 한문: 愛新覺羅 多鐸, 1614~1649)의 장자이다. 그는 1649년 豫親王의 작위를 계승받았고, 1651년에 봉호를 信親王으로 개칭했으며, 쿠부허 샹기얀 구사(만문: kubuhe šanggiyan gūsa, 한문: 鑾白旗)에 소속되었다. 아버지 도도와

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Ⅲ. 전선 건조의 추진과 변경

1. 도니당안 속 전선 건조 방안

청·러 국경분쟁 초기 청의 수군 보강 방안은 크게 전선 건조와 수군 병력 보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3장에서는 이 중 청의 전선 건조 계획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한·중·러 자료 중 분쟁 초기 청 수군의 전선 보강에 대한 가장 이른 자료는 도니당안²¹⁾이다. 도니는 1655년 8월에 샤르후다가 상주한 동북 지역의 전황과 이 지역 팔기에 대한 보강 방안을 병부 관리들, 허베이 암반(만문: hebei amban, 한문: 議政大臣)과 차례로 논의한 뒤 최종 결정안을 順治帝(재위기간: 1643~1661)에게 상주하여 윤허를 받았는데, 이 과정의 내용을 도니당안에 기재했다. 샤르후다가 건의한 보강안 중 하나가 동북팔기에 수군을 배치하는 것으로, 샤르후다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전선의 종류와 水兵들의 兵種을 통해 배치하고자 하는 수군이 우전초하에 소속된 수군임을 알 수 있다. 이 당안에는 청 내 전선 건조안과 조선의 전선 건조안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므로, 먼저 청 내 건조안을 분석한 뒤 조선의 건조안을 분석하기로 한다.

mukede musei cooha. weihu i yabuci ojarahū.. uttu ofi ede batalara amba cuwan. hung i amba poo. miyoociyang. okto ere be yooni bahaci. mukede.

숙부 도르곤(만문: aisin gioro dorgon, 한문: 愛新覺羅多爾袞 1612~1650)이 암바푸진 올라나라씨(만문: ula hala abahai, 한문: 烏喇那拉 阿巴亥, 1590~1626)의 소생이므로 1652년에 순치제가 예친왕의 시호를 삭탈할 때 도도의 친왕 작위도 삭탈했다. 이에 도니의 작위도 신친왕에서 信郡王으로 격하되었다. 도니는 다른 종친들처럼 여러 전쟁터에 파견되어 활동을 벌이던 중 1660년 李定國(1621~1662)의 남명군과 벌인 盤山(지금의 雲南省 騰冲) 전투에서 패하여 다시 징계를 받았고, 다음 해 병사했다.(『八旗通志初集』 「宗室王公列傳七」 21쪽)

21) 도니, 1655, 「題爲羅刹入境侵擾請派官軍進剿事」, 北京: 中國第一歷史檔案館.

looca i baru afaci ombi.²²⁾

의역: 우리 군은 물에서 작은 배로 (싸울) 수 없다. 그러므로 (수군에서) 활용할 대선, 홍의대포, 조총, 화약 이러한 (물품을) 얻어야 물에서 러시아(군을) 공격할 수 있다.

cuwan be gūsin ara seme weilere jurgan de afabuki.²³⁾

의역: 배 30(척)을 건조하기 위해 工部에 (이 일을) 맡기자!

위 인용문에 따르면 각각 도니당안의 앞부분에 있는 샤르후다의 상주문 중에서 샤르후다는 1655년 6~7월 사이의 전황을 조정애 보고하고, 大船²⁴⁾의 필요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대선 30척의 건조를 요청했다. 이 두 인용문 속 전선의 종류와 건조하고자 하는 전선의 수를 통해 샤르후다가 동북팔기 안에 우전초하에 소속된 수군을 대규모로 편성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건의는 샤르후다가 당시 전선의 문제 중 하나가 작은 전선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1654년 송화강전투 중 기존 전선인 자피선은 전선의 크기와 기동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샤르후다는 이 중 전선의 크기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조선군 지휘관 변급의 지적이 샤르후다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샤르후다가 이 건조안을 공부에 맡기고자 했는데, 이는 전선을 건조하는 기술자들과 그들이 속한 공부가 묵던(만문: mukden, 한문: 瀋陽) 지역이나 북경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당시 청은 제1 수도인 북경에 공부가 있었고, 남방의 여러 전선을 제외하고 우전초하가 많이 주둔한 駐防은 묵던 지역과 북경 지역에 있었으므로 우전초하가 활용하는 전선을 건조하려면 이 두 수도 중 한 곳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22) 도니, 1655, 위의 당안, 5쪽.

23) 도니, 1655, 위의 당안, 7쪽.

24) 대선은 『明實錄』의 기록을 살펴보면 바다 항해를 하기 위해 건조한 선박을 가리킨다. 즉 여러 지역에 주둔한 명 수군의 전선 중 바다 항해를 위해 건조된 대형급 전선을 가리킨다.

šarhūdai emgi hebedeme yabure manju emu amban be ubaci unggime.. afara cuwan be amba janggin šarhūda. ubaci genere amban. cuwani ton amba ajiigen be acara be tuwame arakini.²⁵⁾

의역: 암바 장긴 샤르후다와 (이 일을) 함께 상의할 만주 (구사 출신의) 암반을 파견하고, 샤르후다가 여기에서 지원할 (전)함의 수와 크기가 맞는지 살펴본 뒤 (전 선을) 건조하자!

중양의 병부 관리들은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샤르후다를 위시한 동북 지휘관의 전선에 대한 방안을 수용했다. 그리고 병부는 이 방안을 샤르후다와 같이 전선의 크기와 수를 상의하여 추진할 암반으로 만주구사 소속의 암반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서 샤르후다와 청 중앙 관리들의 의견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병부가 만주구사 소속의 암반을 파견한다는 것은 일부 우선초하와 관련된 전선이나 병력을 보내되 수군 편성 자체를 기존의 만주구사를 중심으로 하려는 것을 암시했다.

uttu be dahame neneme gisurehe songkoi(...) cuwan arara be cuwan šurure niyalma(...) te jabdure be tuwame jurambuki.. cuwan arara de. ubaci cuwan arara faksi. cuwan de baitalara aka be belhefi kemuni weilere jurgan de afabufi janggin tucibufi inu jabduhai jurambukini(...) coohiyān gurun i cuwan arara faksi. cuwan de baitalara futa. selei jergi jaka be tucibure be nakabuki.²⁶⁾

의역: 그래서 이전에 말한 것처럼(...) (전)선을 만드는 사람과 (전)선을 짓는 사람²⁷⁾(...) 지금 알맞은지 살펴본 뒤 (동북으로) 보내라! 여기에서 배를 건조할 때 (필요한) 조선공, 배(에서 쓸) 물품을 준비하고, (이 일을) 공부에 맡기고 장기를 파견하며, (준비)되는 대로 보내자!(...)

허버이 암반들은 위의 인용문처럼 병부의 전선을 건조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25) 도니, 1655, 앞의 당안, 9쪽.

26) 도니, 1655, 「題爲羅刹入境侵擾請派官軍進剿事」, 北京: 中國第一歷史檔案館, 13-14쪽.

27) 조선에는 배를 짓는 전문 병사인 格軍이 있었으므로 이들을 가리킨 것이다.

이때 당안에서 건조와 관련된 물품을 조달하는 곳을 여기라고 표기했는데, 이 여기는 묵턴으로 추정했다. 북경으로부터 물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거리상 너무 멀므로 운송하는 데 상당한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이에 반해 묵턴은 닝구타에서 가깝고, 우전초하와 관련된 물자를 많이 보관하고 있으며 우전초하 소속의 병력이 동북 내에서 가장 많이 주둔한 지역이므로 건조와 관련된 물품과 조선공을 비교적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즉 동북으로의 물자 지원에 관한 지시는 공부 관청이 있는 북경의 중앙정부가 하되,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일은 묵턴에 있는 정부가 처리한 것이었다. 위 청 내의 전선 건조안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도니당안 속 동북 지휘관과 병부 및 허베이 암반의 청 내 전선 건조안에 대한 의견

	전선과 관련된 인원(건조, 水兵 등)	물자
동북	(1) 압반 (2) 우전초하의 머이런이 장긴 (3) 우전초하의 구사마다 장긴 2명씩 (4) 우전초하의 구사마다 포수 3명씩	(1) 대선 30척 (2) 쌀
병부	(1) 만주구사 출신의 암반 (2) 갈라마다 1명씩 유능한 잘란이장긴 (3) 우전초하의 구사마다 늙은 장긴 1명씩, 푼더보쇼쿠 1명씩 (4) 포수(병사 수 지정 x) (5) 우전초하의 보병(병사 수 지정 x, 물잔 운반 담당) (6) 화약 장인(병사 수 지정 x)	(1) 홍의포(수레, 소)
허베이 암반	병부 요청안 모두 수용	병부 요청안 모두 수용

이와 더불어 샤르후다는 자국 내의 건조 방안 외에 조선의 전선 활용안을 건의하였다.

ereci tulgiyen. geli afara cuwan be coohiyan gurun ci muke be gajici oci gajikini.. ojurakū oci nakakini.²⁸⁾

의역: 이 외에도 조선으로부터 전선을 물(길)로 가져올 수 있다면 가져오자! 안되

면 하지 말자!

그가 이와 같이 조선의 전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은 동북팔기 전선의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말한 조선의 전선은 판옥선을 가리킨다.²⁹⁾ 샤르후다는 과거 병자호란(1636~1637)에 참전한 적이 있어, 판옥선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1655년 당시 전선의 크기를 중시하게 된 그의 눈에 중·대형 전선인 판옥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다만 그는 한반도에서 동북 지역으로 물길을 통해 판옥선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이 두 지역이 배를 띄울 수 있는 물길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병부는 샤르후다의 조선 판옥선 활용 방안을 대신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coohiyan gurun i miyoociyang sindara niyalma. cuwan arara faksi. cuwan šurure niyalma i jetere bele be coohiyan ci gajifi jekini..³⁰⁾

의역: 조선으로부터 조총수와 (전)선을 만드는 사람 및 (전)선을 짓는 사람을 지원받고, 아울러 이들이 먹을 식량도 조선으로부터 지원받아 먹자!

곧 병부는 물길 상황을 고려하여 판옥선을 직접 동북에 가져오는 방안 대신에 조선의 조선공과 격군을 동북으로 파견하여 전선을 건조하고 운용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때 청은 조총수와 조선공 및 격군이 먹을 식량도 조선으로부터 조달 받고자 했는데, 이는 당시 닝구타 지역에서 군량이 부족한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병부가 동북팔기 내의 수군 체제를 만주구사 위주로 두되 조선의 판옥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데에는 당시 청의 남쪽 전황, 자체 내 수군 체제와

28) 도니, 1655, 앞의 당안, 7쪽.

29) 원문에서는 afara cuwan 즉 전선이라고 표기했는데, 당시 판옥선은 조선 수군의 기본 전선이었으므로 조선에서는 ‘전선’이라고 불렀으며, 조선의 장계, 명나라와 청나라의 당안 등 행정 문서에서도 판옥선을 전선으로 표기했다.

30) 도니, 1655, 앞의 당안, 10쪽.

관련이 있다. 당시 청은 전국적으로 수군의 체계가 임시 수군의 상태였다. 당시 청 수군의 주요 근간이 후금 天聰(1627~1637) 연간에 명으로부터 투항한 수군인데, 청은 이를 체계화하고 육성하고자 이 수군을 우선초하에 소속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청초 순치 연간까지는 이 작업이 순조롭지 않았다. 당시 수군은 흔들리는 물 위에서 전투하는 부대였으므로 육군보다 육성이 쉽지 않았고, 그 위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수병을 키우려면 전문적인 교관이 필요했다. 그래서 청은 입관 후 항복한 명의 여러 지역에서 명군 출신의 교관을 구하고자 힘썼지만 남명(1644~1662) 건국으로 패퇴한 명군이 남명으로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 교관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밖에도 수군이 배를 운용할 때 필요한 물품이나 화기와 관련된 물자 문제 등도 있어 청은 임시 수군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쳐야만 했다.

여기에서 남방의 전황으로 인해 청은 대다수의 수군을 남쪽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였다. 특히 이 건조 방안이 제기된 1655년은 남방의 전황을 담은 修國器(?~?)의 당안에 잘 나타나 있듯이³¹⁾ 청과 남명의 양군이 일진일퇴하는 급박한 상황이였다. 이러한 전황이 펼쳐진 데에는 鄭成功(1624~1662)이 지휘하는 남명의 수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임시 수군 수준이었던 청의 수군은 오랜 기간 해적 활동으로 정규 수군 못지 않은 정성공의 수군에게 열세였다. 따라서 청은 이러한 남방 수군을 먼저 지원해야 했으므로 동북의 수군에 대한 지원은 쉽지 않았고, 정규 수군으로 육성하는 일은 엄두를 낼 수 없었다. 따라서 병부는 이러한 자국 상황 속에 최대한 많은 전선을 건조하기 위해 샤르후다의 판옥선 건조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아울러 판옥선은 동북 지역에서 흔하게 나는 소나무를 활용해 건조하므로, 청은 건조에 필요한 일부 물품만 추가로 조선에 요구하면 되었다.

coohiyān gurun i cuwan arara faksi. cuwan de baitalara futa. selei jergi jaka be tucibure be nakabuki..³²⁾

의역: 조선에서 배를 건조할 조선공과 배에서 쓸 밧줄, 쇠 등의 물품을 지원받는

31) 修國器, 1655, 「提報本省軍官進剿鄭成功交戰情形事」, 北京: 中國第一歷史檔案館.

32) 도니, 1655, 앞의 당안, 13쪽.

것을 하지 말자!

위의 인용문처럼 허베이 암반들은 판옥선의 활용안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비용 문제와 연관이 있다.³³⁾ 동북에서 판옥선을 건조할 때 필요한 비용과 운용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는 조선에 부담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청 정부가 부담해야 했다. 실제 판옥선을 건조하고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이를 위해 청은 조선의 조선공과 격군이 먹을 식량을 보급하고 이들에게 줄 보상금도 챙겨줘야 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판옥선을 건조할 때 약 48~88명의 조선공이 동원되며,³⁴⁾ 이를 운용할 때 1척당 약 80~120여 명의 격군이 필요했다.³⁵⁾ 그래서 이 문제를 고려한 병부는 조선에서 식량을 가져오되 그만큼 다음 해 年貢 중 백미 조공량을 줄여주자는 대안을 냈다. 이러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허베이 암반들은 샤르후다-병부의 판옥선 건조 방안을 기각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위에서 언급한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조선을 활용한 전선 건조안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도니당안 속 동북 지휘관과 병부 및 허베이 암반의 조선을 통한 건조안 대조

	인원	물자
동북	(1) 조총수 500명	(1) 전선 직접 조달 (2) 군량미
병부	(1) 조총수 300명 (2) 조선공 (3) 격군 (4) 예부의 장긴 솔호투크서	(1) 군량미(연공에서 차감) (2) 밧줄, 쇠
허베이 암반	(1) 조총수 파병안 수용 (2) 전선 조선공, 격군 요청안 기각	(1) 군량미안 수용 (2) 밧줄, 쇠 수용안 기각

33) 홍은, 2023, 「도니당안으로 본 청·러 국경분쟁 초기 전황과 청 조정의 결정」, 『만주연구』 35, 221쪽.

34) 『日省錄』 순조 22년 8월 3일 갑진.

35) 『肅宗實錄』 권40, 숙종 30년 12월 28일 갑오.

2. 전선 건조의 실행

허버이 암반들이 의결한 최종안이 상주되어 순치제의 윤험을 받은 뒤 전선 건조와 관련된 안건을 실행에 옮긴 것은 1657년 초였다. 이와 관련된 당안은 상당수가 현재 비공개 상태인데, 安雙成(中國第一歷史檔案館)이 2000년에 이 중 일부 당안의 원문은 비공개한 채 번역문을 『歷史檔案』³⁶⁾에 발표했다.³⁷⁾ 안쌍성이 번역문으로 공개한 당안은 1657년 초에 도로이 버일러인 두란(만문: aisin gioro dulan, 한문: 愛新覺羅 杜蘭, 1633~1675)과 공부상서 순타(만문: giorca sunta, 한문: 覺爾察 孫塔, ?~1665) 및 병부시랑 어혈리가 작성한 당안으로 이 안에는 위에서 언급한 도니당안 속 전선 건조안을 실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세 당안에는 도니당안 속 건조안을 실행하기 위해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싣고 있는데, 이를 먼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두란과 순타 및 어혈리당안 속 전선 건조안

	인원	물자
두란당안 ³⁸⁾	도니당안의 방안 실행을 요청 추가 내용 (1) 우전초하의 장긴으로 金丁保, 王揚名 내정 (2) 舵公 (3) 揚帆人 (4) 水手	
순타당안 ³⁹⁾	(1) 목련 지역에서 벌목 (2) 木匠 (5城 60명, 天津 27명) (3) 粘匠 (천진 20명, 通州 20명) (4) 造帆匠 (천진 10명) (5) 編席匠 (천진 10명)	전선 15척 건조용 물자 (1) 大鐵錨 30개 (2) 二等鐵錨 30개 (3) 桐油 20만근 (4) 대나무

36) 1981년에 창간된 중국 '核心期刊' 등급의 학술지이다. 발행기관은 중국 國家檔案局과 中國第一歷史檔案館이다.

37) 安雙成, 2000, 「順治十四年吉林拉發渡口建造戰船題本」, 『歷史檔案』.

38) 두란, 1657, 「多羅貝勒杜蘭等爲派員至拉發渡口建造戰船事題本」, 北京: 中國第一歷史檔案館.

39) 순타, 1657, 「工部尙書孫塔等爲建造戰船以征討羅刹事題本」, 北京: 中國第一歷史檔案館.

40) 어혈리, 1657, 「兵部左侍郎額赫里等爲選調江浙水水前赴寧古塔事題本」, 北京: 中國第一歷史檔案館.

	(6) 編繩匠 (천진 10명)	(5) 釘, 鐵錫子 등 (6) 철 8만근, 炭 16만근 (7) 장인들이 먹을 쌀 (8) 은 5천량
어혈리당안(1657) ⁴⁰⁾	(1) 7월 내로 木匠들 도착 지시 (2) 木匠 (34명) (3) 鋸板匠人 (4) 舵公 2명당 20명의 水手 배치 (5) 舵公 (강남 23명, 절강 22명) (6) 揚帆人 (강남 22명, 절강 23명) (7) 水手 (강남 110명, 절강 110명, 산둥 80명)	8~10월 내 갑판 설치 1658년 2월 건조 시작, 4월 15일 건조 완료 계획

두란의 당안에서는 차출할 우전초하의 장긴들과 전선을 운용할 인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 당안에서는 차출할 우전초하의 장긴으로 항주에 주둔 중인 우전초하의 굴루 상기얀 구사(만문: gulu šanggiyan gūsa, 한문: 正白旗)에서 장긴인 金丁保(?~?)와 절강에 주둔 중인 우전초하의 쿠부허 수와얀 구사(만문: kubuhe suwayan gūsa, 한문: 鑲黃旗)에서 遊擊인 王揚名(?~?)을 내정했다. 아울러 차출할 수병의 종류를 구체화하였는데, 배 키를 관리하는 선원인 舵公과 돛을 관리하는 선원인 揚帆人 및 水夫인 水手를 차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타의 당안에서는 이러한 두란의 당안 중 전선을 건조하는 장인들과 물자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 당안은 전선을 건조하는 목공을 전선의 갑판 등을 만드는 목공인 木匠, 전선의 미장을 담당하는 粘匠, 돛을 제조하는 造帆匠, 전선 안에 좌석 부분을 만드는 編席匠과 전선에 쓰이는 새끼줄을 제조하는 編繩匠으로 세분화하여 천진과 通州 지역에서 차출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전선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물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 당안에 1655~1656년 사이에 전선 건조안이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를 기재했다. 전선 건조를 위한 물자와 목공들을 조선소가 있는 拉發渡로 보내야 했는데, 묵턴에서 랍발도로 이어지는 도로를 허투알라(만문: hetuala, 한문: 興京)에 있는 永陵의 능침과 사당 및 절을 수리하고, 근처의 二陵 즉 묵턴 지역에 있는 天命帝의 福陵과 崇德帝의 昭陵의 능침도 수리하느라 건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⁴¹⁾ 병부가 1656년 혹은 1657년 초 무렵 이들을 묵턴과 랍발도를 잇는 도로 공사에

투입하면서 물자와 군대가 오고 가는 길을 건설하여 1657년에 마침내 전선의 건조 작업이 시행될 수 있었다.

어혈리의 1657년 당안은 두란과 순타의 당안을 바탕으로 목공 부분과 그 일정, 전선을 운용하는 선원의 차출과 기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 당안에서는 목공을 더 세분화하여 鋸板匠人도 차출하자고 건의했으며, 이들로 하여금 1657년 8~10월 내 갑판을 만들고, 1658년 2월에 건조를 시작하여 4월 15일에 완료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그리고 이 당안에서는 순타의 당안에서 언급한 木匠의 수를 대폭 줄이자는 건의를 했다.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건조할 대선을 30척에서 20척으로 줄인 결과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 당안에서는 돛이나 키를 담당하는 선원들을 강남과 절강 및 산둥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몇 명을 차출할지도 기재했다.

이러한 건조안을 추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에는 1657년에 시행된 해금령이 있다. 이전에도 청은 남쪽의 청 수군이 정성공군에게 거듭 패하자 해금령을 내려 정성공의 재정적인 기반을 제거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 해금령이 해안 지역의 상업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청은 해금령의 시행과 해제를 반복했다. 그러던 중 해안 지역민들이 바다를 통해 해외로 이주하여 그 일부가 정성공군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청은 1657년에 다시 해금령을 시행하여 해안 지역민의 유출을 막고자 했다. 이러한 이유로 남방에 주둔한 여러 청의 수군은 해전을 자제하고, 동북으로 장진과 선원 및 물자를 지원할 수 있게

41) 순치제는 입관 후 황권 강화를 위해 1648년(순치 5년)에 천명제 누르하치의 6대조인 먼터무(만문: aisin giro mentemu, 한문: 愛新覺羅 孟特穆, 시호: 肇祖原皇帝, 1370~1433)와 증조부인 푸만(만문: aisin giro fuman, 한문: 愛新覺羅 福滿, 시호: 興祖直皇帝, ?~?), 조부인 기오창가(만문: aisin giro giocangga, 한문: 覺昌安, 시호: 景祖翼皇帝, 1526~1583)와 부인 탁시(만문: aisin giro taksi, 한문: 愛新覺羅 塔克世, 1543~1583) 이 4명을 황제로 추존했다. 추존 후 후금 시기 허투알라에서 遼陽 東京陵(中國遼寧省遼陽市文聖區東京陵街道東京陵村)으로 遷葬했던 누르하치의 조부와 부의 무덤을 다시 허투알라로 천장하여 6대조와 증조부의 무덤과 합쳐 興京陵을 조성했다. 이때 누르하치의 백부인 리둔(만문: aisin giro lidun baturu, 한문: 愛新覺羅 禮敦巴圖魯, ?~?)과 숙부인 타차피양구(만문: aisin giro taca fiyangū, 한문: 愛新覺羅 塔察篇古, ?~?)의 무덤도 이 興京陵 근처에 조성했다. 이후 1659년 흥경릉을 永陵으로 개칭했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묵딘의 복릉과 소릉, 동경릉에 남아 있던 누르하치 일가의 무덤도 수리하는 등 청은 묵딘 지역에서 대규모의 토목사업을 진행했다.

되었다.

이 1657년의 건조 방안은 1658년 초에 또다시 변경이 있었는데, 이에 관한 당안이 호부상서 衛周祚(만문: wei jeo zu, 1611~1675)⁴²⁾가 1658년 음력 1월 4일에 작성한 당안이다.⁴³⁾ 위주조의 1658년 건조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위주조의 당안 속 건조안

	선박 수	물자
1차 변경안	대선 20척 → 대선 15척	목재, 철, 밧줄, 대나무 기둥 2250斤, 녹나무 기둥 15000근 → 2/3이 운반된 상태에서 중단
2차 변경안	대선 10척까지만 건조, 호선 8척을 추가 건조	호선 42척에 필요한 물자: 布 2100장, 밧줄 90개,
3차 변경안	42척을 추가 건조 총: 60척(대선 10척, 호선 50척)	

위주조의 당안에 따르면, 1657년에 진행된 건조 방안에서 3가지 사항이 변경되었다. 첫째는 30척 건조안이 15척으로 줄여 진행된 것이고, 둘째는 대선 15척 중 10척이 건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唬船 8척을 건조한 것이고, 셋째는 추가로 호선 42척을 더 건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경안에 따라 전선을 건조하기 위한 물자 보급량도 변경되었다.

du šui cing li syi alibuhange(...) omšon biyai orin nadan de ningguta de isinjifi. (...) cuwan arame jihe ujen coohai janggin jin ding boo. wang yang ming. be uheri acafi hebdeme gisureci. musei neneme arambi sehe tofohon cuwan amba bime()⁴⁴⁾

42) 위주조는 山西 曲沃 출신으로 1637년에 명의 進士試에 합격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1644년 명이 멸망했을 때 청에 항복하여 청의 관리가 되었다. 청에서는 공부와 형부, 이부, 호부 등에서 두루 관직을 지냈다.

43) 衛周祚, 1658, 「提報核查寧古塔修造大船用過木料等項數目事」, 北京: 中國第一歷史檔案館.

의역: 都水⁴⁵⁾ 칭리시가 상주한 것: (...)11월 27(일)에 닝구타에 이르러(...) (진함을 건조하러 왔던 한군팔기의 장긴 진딩보(와) 왕양명을 모두 만나서 의논하길, “우리가 이전에 건조한다고 했던 15(척의) 대선이 있고(...)”

cuwan de baitalara yaya hacin be bodofi. giyangnan de hafan takūrafi. ganafi gajihangge be. ilan obu de. juwe obu be siran siran I giyamulame benehe.. emu obu benere unde.⁴⁶⁾

의역: 배(를 건조할 때)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물품을) 헤아려서 강남에 관리(를) 파견하여 가져온 것을 3 (중) 2를 차례로 역참을 통해 보냈다. 1은 아직 보내지 않았다.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 따르면, 1차 변경안은 1657년의 건조 방안인 20척에서 대선 15척을 건조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위주조의 당안에 따르면, 이 변경안은 두란당안에서 추천한 金丁保와 王揚名의 지휘 아래 이미 1657년 11월에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를 『北征錄』의 기록과 교차 검증해보면 수정안에 따라 건조가 시작된 시점은 1657년 8월이었다.⁴⁷⁾ 이를 보건대 어혈리의 1657년 당안에서 1658년 2월에 건조를 시작한다는 것보다 더 빠르게 건조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유가 여타 청측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와 관련된 당안은 아직 비공개 상태이므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두 번째 인용문에 따르면, 대선 15척 중 10척은 건조에 쓰일 재료를 강남으로부터 공급받아 먼저 건조를 완료하였으며, 이 전선으로 1657년에 있었던 상견오 흑전투에 참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훗날 이 10척의 대선은 송화강-흑룡강 전투에서 군인들과 물자를 운송하는 운반선의 역할을 담당했다.⁴⁸⁾ 그런데 대선 20척

44) 衛周祚, 1658, 앞의 당안, 2쪽.

45) 중국 漢代에 만들어진 관직으로, 강이나 바다를 통한 운송이나 수리와 관련된 시설 등을 보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46) 衛周祚, 1658, 앞의 당안, 4-5쪽.

47) 『北征錄』 1658년 6월 1일 기사.

48) 『北征錄』 1658년 5월 13일 기사에 따르면, 이 배는 운송에 사용되었다.

에서 15척으로 왜 방안이 변경되었는지는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위주조의 당안이나 여타 청측의 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다른 당안은 아직 비공개 상태이므로 알 수가 없다.

te amba tofohon cuwan be nakafi. neneme arambi sehe ajige jakūn hū cuwan ci⁴⁹⁾

의역: 지금 대(선) 15(척)을 (건조하는 것을) 멈추고, 이전에 건조하겠다고 말했던 작은 8척의 호선에서

lata. damu edun be tuwame yabuci ombi.. looca i cuwan geli musei cuwan ci ajigen(...)⁵⁰⁾

의역: (전선이) 느려 바람을 타야만 운행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배는 우리 배보다 작다(...)

neneme amba cuwan de baitalara amba moo sele. amba moo ben futa. amba cuwan ušara ta futa. moo ju cuse moo juwe minggan juwe tanggū susai. nan ju cuse moo juwan tumen sunja minggan gin.. ere hacin I jaka be gemu nakabu..⁵¹⁾

의역: 이전에 대선을 (건조하기 위해) 쓸 큰 나무와 철 및 목질의 밧줄, 배를 끌기 위해 (사용되는) 끊어지는 밧줄, 대나무 기둥 2,250斤과 녹나무 기둥 105,000근 (등) 이러한 종류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멈추어라!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 따르면, 2차 변경안은 대선 15척의 건조안에서 호선 8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건조를 담당한 관리들이 전선의 종류를 변경한 이유는 두 번째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전선의 속도 문제였다. 이는 앞에서

49) 衛周祚, 1658, 「提報核查寧古塔修造大船用過木料等項數目事」, 北京: 中國第一歷史檔案館(檔案號: 02-02-035-002543-0050), 5쪽.

50) 衛周祚, 1658, 「提報核查寧古塔修造大船用過木料等項數目事」, 北京: 中國第一歷史檔案館(檔案號: 02-02-035-002543-0050), 2쪽.

51) 衛周祚, 1658, 앞의 당안, 2-3쪽.

송화강 전투에서 청 수군이 패퇴한 이유 중 하나이자 바다 항해에서 활용하는 대선은 강에서 활용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대선 자체는 속도가 느리지 않으나 바람의 방향과 격군의 숙련도, 인원수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바다와 달리 강은 좁은 구간이 존재하므로 바다 항해에 적합한 대형 전선이 항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대선의 대안으로 부상한 작은 호선은 절강성과 복건성의 연안과 강에서 명 수군이 활용했던 전선으로 바다 항해에 적합하지 않고 강에서 주로 활용했다. 그 크기는 우전초하가 사용한 전선을 기준으로 하면 소형 전선에 속하지만, 만주구사가 활용한 전선까지 포함한 전체 전선을 기준으로 하면 중형 선박에 속한다. 그래서 호선은 자피선보다 크며, 호선이 선상에서 조총과 불랑기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이라는 점에서, 그 크기가 대포의 반동력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⁵²⁾ 다만 호선은 기동성에 중점을 둔 전선이기 때문에 대형 전선에 비하면 많은 수의 대포를 배치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세 번째 인용문에 따르면, 전선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목재의 운반 문제가 건조하는 전선 수의 변경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래 1657년 건조안에 따르면 목련에서 별목하기로 했던 목재는 중간에 강남에서 녹나무와 대나무를 조달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된 당안이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다만 이 두 나무는 우전초하가 남방에서 전선을 건조할 때 활용하는 목재이다.⁵³⁾ 특히 녹나무는 남방에서만 서식하는 나무이므로 반드시 강남에서 조달받아야 하는 목재 중 하나이다. 그런데 당시 역참을 통해 목재를 운반하는 것은 상당한 노동력과 시간이 드는 일이며, 동북과 강남 사이의 거리를 고려할 때 이 운반 작업은 청 정부가 상당히 부담을 느낄만한 일이었다. 이에 동북팔기 내에서 녹나무와 대나무를 대체할 목재로 박달나무를 채택했다. 이는

52) Hucker, Charles O., 1974, "Hu Tsung-hsien's Campaign Against Hsu Ha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Fairbank, John K., 1974, "Chinese Ways in Warfare", Harvard University Press. pp.273-311.

53) 남방 지역과 일본 지역에서는 전선을 만들 때 삼나무와 녹나무를 주로 썼다.

목재의 조달을 다시 현지에서 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을 의미했다.

동북 지역의 나무 가운데 박달나무가 채택된 이유는 기동성과 관련이 있다. 박달나무는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이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이 자작나무과의 나무는 유럽의 갤리온이나 카락 등 바다 항해를 위한 전선을 건조할 때 활용되며, 이 목재로 건조된 배는 대체로 빠른 편이다.

uttu ofi tofohon amba cuwan be nakafi. ede bodoho yaya hacin de. dehi juwe hū cuwan arambi..⁵⁴⁾

의역: 이리므로 대선 대신 계획했던 모든 종류의 (전선) 중 42척의 호선을 만든다.

jakūn hū cuwan be dabume uheri susai cuwan obumbi..⁵⁵⁾

의역: 8(척의) 호선에 이어 모두 50(척의) 배를 만든다.

3차 수정안은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호선 42척을 더하여 총 50척의 호선을 건조하는 것이다. 이는 청 정부가 동북팔기 내에서 호선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송화강-흑룡강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수군 병력이 탑승할 수 있도록 42척을 더 건조하는 것이다. 이 50척의 전선은 실제로 전투에 투입되었는데, 이는 『북정록』을 통해 교차 검증이 된다.⁵⁶⁾ 이러한 전선 건조안은 선상에서 싸울 수군 병력의 병종과 이들이 활용하는 무기의 종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54) 衛周祚, 1658, 「提報核查寧古塔修造大船用過木料等項數目事」, 北京: 中國第一歷史檔案館(檔案號: 02-02-035-002543-0050), 2쪽.

55) 衛周祚, 1658, 위의 당안, 4쪽.

56) 『北征錄』 1658년 5월 15일 기사.

IV. 수군 병력의 보강 방안

1. 도니당안 속 병력 보강안

청 정부는 동북팔기의 전선 건조안과 더불어 선상에서 전투할 수군 병력에 관한 보강책도 함께 마련했다. 본 4장에서는 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쟁 초기 동북팔기의 수군 병력 보강안에 관한 가장 이른 자료도 전선 건조와 마찬가지로 도니당안이다. 청 동북팔기의 총사령관 샤르후다는 이미 송화강전투에서부터 수군 병력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청의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우선초하에 소속된 병력 특히 조총수와 포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앞 장에서 언급했던 남방의 전황으로 인해 중앙정부는 지원 규모를 두고 고민해야 했다.

mukden de tehe cooha be duin tanggū. ubaci ujen cooha i poošeo emu gūsai sunjata(...) ubaci uheri de emu amban. ujen coohai emu meiren i janggin. ujen coohai gūsa tome juwete janggin.. mukden i gūsa tome emte janggin tucibuki.⁵⁷⁾

의역: 심양에 주둔한 군대를 400(명), 여기에서 한군팔기의 포수 한 구사 당 5명씩(...) 여기 전체에서 암반 1(명), 한군팔기의 머이런이 장진 1(명), 한군팔기의 각 구사마다 장진 2(명)씩, 심양의 구사마다 장진 1(명)씩

위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샤르후다는 주로 한군팔기에 소속된 병력과 장교들을 요청했다. 특히 포수를 요청한 것은 대선을 건조한 것과 관련이 있다. 대선은 명 수군이 바다 항해를 위해 건조한 전선이므로 대포를 많이 배치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17세기 초 당시의 대포는 전장식이었기 때문에 한번 발포한 뒤 재장전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으며, 대포의 반동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상대의 전선이나 병력이 화망 안에 들어왔을 때 발포해야 명중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현장의 지휘

57) 도니, 1654, 「題爲羅刹入境侵擾請派官軍進剿事」, 北京: 中國第一歷史檔案館, 6-7쪽.

관들이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샤르후다는 우전초하에 속한 장진들의 파견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요청한 병력의 수와 장진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샤르후다가 요청한 병력의 수는 한군팔기의 구사 당 포수 5명씩 즉 40명과 어느 팔기에 소속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심양에 주둔한 400명의 군인을 합해 440명이다. 이는 1.3 니루에 해당하는 병력이며, 니루마다 0.2명의 포수를 배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청한 장진은 우전초하에서 최소 잘란이 장진 이상 급인 머이런이 장진 1명, 구사당 장진 2명과 만주 혹은 몽고 구사의 구사당 장진 1명씩으로 이들이 지휘할 수 있는 병력의 규모는 요청한 병력의 수를 훨씬 뛰어넘는다. 묵턴의 팔기 내 우전초하 혹은 다른 민족의 구사마다 차출하는 장진이 어느 등급의 장진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장 낮은 등급의 장진인 니루이 장진이라 가정해도 구사당 6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2명의 장진을 차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장진과 병력의 차출로부터 샤르후다가 동북팔기 내에 우전초하를 육성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으며, 이는 대선의 건조와 관련이 있다. 샤르후다는 다년간 군무를 담당했던 관리였으므로 남방의 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고, 묵턴에서 우전초하에 소속된 병력의 많은 차출이 어려운 상황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우전초하의 장진을 통한 동북팔기 내의 병력 양성을 위해 장진의 차출을 많이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대선의 건조에 따른 많은 우전초하의 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요청으로도 볼 수 있다. 샤르후다의 요청에 대해 병부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mukden de tehe cooha duin tanggū. gūsa tome emte janggin tucibume. ubci hung i poo duin. fagung poo duin. ujen coohai uksin emu tanggū. hung i ušara sejen. ihan i jergi jaka de baitalara niyalma be ujen coohai yafaha cooha be teisuleme..poošeo. okto arara faksi be inu acara be tuwame tucibume. ujen coohai gūsa tome fe janggin emte. funde bošokū emte. gala de emte sain jalan janggin tucibume. amba janggin šarhūdai emgi hebedeme yabure manju emu amban be ubaci unggime(...) cuwan šurure niyalma be ubaci acara be tuwame⁵⁸⁾

의역: 묵단에 주둔한 군대 400(명), 구사마다 장긴 1(명)씩 파견하고, 여기에서 홍이포 4(문), 파궁포 4(문), 우전초하의 육신 100(명), 홍의포를 실을 수레, 소 등의 물품과 (이를 가져가기 위해) 필요한 사람을 우전초하의 보병이 담당하고, 포수와 화약을 만드는 장인 또한 모아서 살핀 뒤 (이들 중에서) 선발하고, 우전초하의 각 구사마다 늙은 장긴 1(명)씩, 푼더보쇼쿠 1(명)씩, 각 糞마다 1(명)씩 실력 좋은 잘란 이장긴을 파견하며, 암바장긴 샤르후다와 (이 일을) 상의할 만주구사의 암반 1(명)을 여기에서 파견하고(...) 노 젓는 사람이 알맞은지 살피고

위의 인용문을 보면, 병부는 샤르후다가 요청한 지원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지만, 병력과 장진에서 가감이 있었다. 먼저 병부는 병력에서 우전초하에 소속된 육신 100명과 약간의 우전초하 보병과 화약을 만드는 장인 및 노젓는 사람을 추가했다. 이들의 직무와 병종을 살펴봤을 때 묵단의 우전초하에 소속된 병력들로 추정되며, 대선의 건조에 따른 병력 증강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병부는 샤르후다가 요청한 묵단팔기의 병력 400명 차출안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우전초하 중 선상의 전투 병력인 포수와 조총수를 살펴보면, 병부가 파견할 포수의 수를 기재하지 않아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샤르후다가 요청한 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전초하에 소속된 육신의 병종은 주로 조총수와 포수로, 이미 원문에서 포수를 따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육신들은 조총수일 가능성이 높으며, 100명의 육신은 3.3 니루에 배치할 수 있는 병력이었다. 병부가 우전초하 소속의 육신을 추가로 파견한 것은 동북팔기 내 대선의 건조에 따른 선상의 전투 병력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병부는 묵단 방어와 남방의 긴박한 상황도 고려하여 그 추가 지원 규모를 크지 않게 100명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병부는 화기를 사용하는 병력을 보조하기 위해 화약을 만드는 장인과 대포를 운반할 병력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조총수와 포수는 흑색화약을 사용했는데, 이를 제작하기 위해 염초를 생산하거나 硝石을 채굴해야 했다. 중국에서 초석을 채굴하는 곳은 산동성과 감숙성, 사천성 일대로 동북에서 멀리 떨어

져 있었다. 그래서 동북에서 화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약 장인이 염초밭을 조성해 염초를 생산해야 했기 때문에 병부는 닝구타로 화약 장인의 파견과 함께 대포 등 화기를 운반하기 위해 우전초하의 보병도 파견을 결정했다.

파견 인원 중 우전초하 내 대선을 운용할 병력을 살펴보면, 병부는 노 젓는 사람 즉 격군을 닝구타로 파견하고자 했다. 병부가 격군을 파견하려고 한 이유는 닝구타 지역에 전문적인 격군이 적었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동북팔기에는 숙달된 격군이 부족해 닝구타 지역에 귀양 온 만주족이나 한인 범죄자들을 水夫로 삼아 노를 젓게 했는데,⁵⁹⁾ 이들은 전문적인 격군이 아니었다. 근대 이전 시기 전선의 운용은 격군의 역량에 좌지우지되었으므로 전문적인 격군의 유무 여부는 수군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동북 지역의 강은 물살이 센 곳이므로 격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이상과 같은 병부의 요청에 허버이암반은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

cooha unggifi loocai yabure be lashalarakū oci ojarahū(...) uttu be dahame neneme gisurehe songkoi hung i. fagung. ujen coohai janggin cooha poošeo. okto arara faksi. cuwan arara be cuwan šurure niyalma. hung i ušara ihan sejen. okto. muhaliyan i jergi jaka. jai šarhūdai emgi hebdeme yabure manju emu amban be tucibufi te jabdure be tuwame jurambuki(...) mukden ci unggimbi sehe janggin cooha be inu kemuni tucibufi morin ulebume bikini. mukden i ere cooha de ubaci coohai jurgan i sunja tanggū morin be. amba janggin yegsu de unggifi tuwame ulebui bukini..⁶⁰⁾

의역: 군대를 파견하여 러시아의 활동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 말한 것에 따라 홍의포, 우전초하의 장건과 군대 및 포수, 화약을 만드는 장인, 배를 만드는 (사람)을, (전선)에서 노 저을 사람, 홍이(포를) 가져갈 때 쓸 소, 수레, 화약, 총 등의 물품, 샤프후다와 함께 상의할 만주구사의 암반 1(명)을 파견하고, 지금 적당한지 살펴보고 출발시켜라(...) 심양에서 보낸다고 했던 장건과 군대도 파견하고, 말(에게) 여물을 먹이고 있어라! 묵턴의 이 군대에 병부에 (있는) 500(필)

59) 吳振臣, 1721, 『寧古塔紀略』, 85; 『北征錄』 1658년 6월 1일 기사.

60) 도니, 1654, 앞의 당안. 13-15쪽.

말을 여기 (북경)으로부터 (이 목련의) 암바장긴 여그수에게 보내 여물을 먹이며 돌 보라고 보내라!

허베이암반들은 회의를 통해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병부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고 여기에서 기병 부대를 추가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남하를 더는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남방의 전황이 일진일퇴의 상황이었으므로 청은 중국 전체를 장악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만일의 상황에 따라 되돌아가야 할 때를 고려해 목련의 방어는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그런데 러시아의 빠른 남하로 송화강 지역까지 러시아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면서 목련 지역의 방어도 위협받았다. 따라서 청 정부는 조속히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병부와 마찬가지로 남방의 전황을 고려하여 북경과 남방 지역의 우선초하를 동북으로 파견하지 못하고, 목련의 우선초하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려는 병부의 방안을 수용했다.

허베이암반들은 동북팔기의 기병 부대를 더 보강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목련 지역에 주둔한 한군팔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 주둔한 우선초하를 동북에 파견할 수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기병 부대를 통해 이를 상쇄하고자 했다. 이 조치는 야전 특히 육전에서 러시아와 청이 전투할 때를 대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분쟁 초기 전투의 대부분이 수전이었고 육전은 주로 요새전이었으므로, 이 조치가 동북팔기의 전력 보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따라서 분쟁 초기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상에서 분석한 세 부서의 병력 동원 방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기] 도니당안 속 사르후다, 병부, 허베이 암반의 청 내 병력동원 방안

사르후다	병부	허베이 암반
병력: 목련팔기의 400명, 구사 당 5명 포수(목련의 우선초하) 장군&장교: 암반 1명.	병력: 목련팔기의 400명, 목련 우선초하의 보병, 육신 100명, 포수, 화약공 장군&장교: 구사 당 늙은 장긴	병력: 병부의 의견 수용 만주 혹은 몽골구사의 기병부대(목련의 암바장긴 여그수가 관리) 장군&장교: 병부의 우선초하

머이런이 장긴 1명(목턴의 우전초하), 구사마다 장긴 2명씩(목턴의 우전초하), 구사마다 장긴 1명씩	1명씩(목턴의 우전초하), 구사 당 푼더 보쇼쿠 1명씩, 각 갈라 당 잘란이장긴 1명씩, 암반 1명(만주구사)	소속 장긴 파견안 수용
---	--	--------------

한편 샤르후다는 자국 내 병력 파견 요청과 더불어 조선군의 파견 요청도 함께 했다.

ningguta. coohiyān gurun de hanci be dahame miyoociyang sindara sain sunja tanggū niyalama be tucibuki..⁶¹⁾

의역: 닝구타가 조선에서 가까우므로 조총수 500(명)을 파견하게 하라!

샤르후다는 일찍이 송화강전투 때부터 조선군을 수군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변급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변급은 전선의 크기를 지적했는데, 이 지적에 따라 대선을 건조하게 되면서 그는 조선군을 수군으로 활용할 계획도 함께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대선 30척에 조선의 조총수 500명을 나눠 승선시키면 1척당 16~17명이 된다. 이를 통해 샤르후다가 조선군의 비중을 높게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coohiyān gurun i ujen ningguta de hanci be dahame miyoociyang sindara sain ilan tanggū niyalma. cuwan arara faksi. cuwan šurure niyalma (...) jetere bele be coohiyān ci gajifi jekini.. ubaci genere uheri coohai anggala de jetere bele be mukden ci unggici ba goro. ningguta i jeku geli haji(...) ere bele i ubu be. aniya i amba albanī dorgi be acara be tuwame taka kooli guwebume⁶²⁾

의역: 조선이 닝구타에서 가까우므로 조총을 잘 다루는 300(명)의 사람, (전)선을 만드는 사람, (전)선을 짓는 사람(...) 먹을 쌀을 조선으로부터 가져와 먹자! 여기 (심양)에서 갈 모든 군인이 먹을 쌀을 목턴에서 보내면 거리가 멀고 닝구타의 식량도

61) 도니, 1654, 앞의 당안, 6-7쪽.

62) 도니, 1654, 앞의 당안, 10-11쪽.

부족하니(...) 이 쌀의 할당을 연공의 (규정을) 살피고 잠시 면제해 주고,

위 인용문을 보면, 병부는 샤르후다가 건의한 조선 조총수 파견 요청의 안을 수용하되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으며, 판옥선 활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조선공과 격군을 조선으로부터 차출하고자 했다.

먼저 병부가 샤르후다의 조선군 조총수 활용안을 수용한 것은 남쪽 전황과 묵던 방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청의 우전초하 상당수는 남쪽에서 남명과의 전투에 투입된 상태였고, 묵던 지역의 우전초하는 심양의 방어를 위해 소수의 지원군만 남구타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동북과 남방 여러 지역 팔기의 상황 속에 조선군은 우전초하와 병종면에서 거의 같고, 특히 조선의 조총수는 지난 조선과 후금 간의 전투에서 그 전투력이 검증되었다. 후금 시기 만주족은 여러 차례 조선과의 전투를 통해 조선군의 기병과 일반 보병 등에 대해서는 혹평했지만 조총부대에 대해서는 호평했다. 그러므로 병부가 큰 고민 없이 부족한 우전초하의 대안으로 조선 조총수의 파견을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병부가 동북으로 파견하는 조총수의 수를 샤르후다가 요청한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인 것은 비용과 식량의 문제와 연관이 있었다. 청은 후금 시기부터 파병을 요청한 부족들에게 포상이나 인명 손실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청은 이를 첫 조선군의 파병인 椴島征伐(1637) 때부터 적용했다. 그래서 청은 조선군이 파병되었다가 전투 없이 회군한 1638년 파병을 제외하고 제2차 나선정벌까지 조선 국왕이나 파견된 병사 개개인에게 참전에 대한 포상을 했으며, 목숨을 잃거나 다쳤을 때는 보상을 했다. 그러므로 청은 샤르후다가 요청한 조총수 500명 파견안을 수용하면 그만큼의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준비해야 했으므로 재정적인 부담이 되었다.

또한 청의 남구타 지역은 군량미가 부족하여 조선군의 식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분쟁 초기와 관련된 한·중 사료를 살펴보면, 청 정부가 남구타 지역에서 군량미 문제로 고민한 부분이 나타나 있다. 당시 조선이 조선군의 식량을 직접 조달했는데, 송화강전투(제1차 나선정벌)와 송화강-흑룡강 전투(제2차 나선정

별) 때 모두 청의 통역관이 늦게 도착하거나 청의 필요에 따라 조선군이 좀 더 오래 주둔함에 따라 1차 식량 조달 이후에 다시 2차, 3차 식량 조달이 필요했던 경우가 있었다. 당시 청의 중앙정부는 닝구타 지역의 군량미를 조선군에게 내주라고 지시했으나,⁶³⁾ 샤르후다는 군량미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내주었다. 그리고 청은 조선에게 조선군의 파병 혹은 연공과 별개로 따로 군량미의 조공을 요구하기도 했다.⁶⁴⁾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닝구타 지역에 군량미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파견하는 조선군의 수를 줄인 병부의 의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파견할 조총수의 수를 줄였다고 해서 조선군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300명의 조총수를 대신 30척에 나눠 승선시키면 한 척당 10명의 조총수가 탑승하게 되는데, 이는 선상 전투 병력의 1/4~1/3을 조선군 조총수로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여전히 병부는 조선군 조총수를 동북팔기의 주력으로 활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병부는 조선 수군의 활용안 특히 판옥선 활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샤르후다의 병력 활용안에 대한 2가지 보강안을 제안했다. 일찍이 청은 명과의 전쟁에 조선의 수군을 활용할 정도로 조선의 전선 등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병부가 조선을 통해 동북팔기에 다른 지역에 주둔한 우전초하의 파견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되도록 많은 전선을 보유하고자 했다.

첫 번째 보강안은 판옥선을 직접 조선에서 동북으로 보낼 수 없으므로 판옥선을 건조하는 조선공과 이를 운용할 격군을 동북에 직접 파견하는 것이다. 당시 청은 판옥선의 전투력을 알고 있었지만 그 건조 방법은 몰랐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선공이 필요했다. 아울러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청의 동북팔기 내 비전문적인 수부는 많지만 전문적인 격군이 적었으므로 조선으로부터 격군도 파견받아야 했다.

두 번째 보강안은 조선이 직접 조선군의 식량을 조달하게 하되 사용한 군량미

63) 郎丘, 1654, 「著戶部發給寧古塔官糧食用」, 北京: 中國第一歷史檔案館(檔案號: 02-10-02-2109-006).

64) 『효종실록』 권20, 효종 9년 3월 3일 경자.

만큼 연공에서 면해주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닝구타 지역의 군량미 상태는 좋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청의 병부는 판옥선의 건조와 운용에 필요한 많은 수의 조선군을 차출해야 하므로 조선에 대해 연공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대안을 제안했다. 판옥선의 건조에 필요한 인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⁶⁵⁾ 48~88명의 조선공이 동원되며,⁶⁶⁾ 1척당 80~120여 명의 격군이 필요하다.⁶⁷⁾ 구체적으로 샤르후다나 병부가 몇 척의 판옥선을 원하는지 제시하지 않아 건조하고자 하는 판옥선의 수를 알 수 없지만, 1척을 건조한다고 가정해도 조선공과 격군을 합쳐 최소 128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병부는 당시 닝구타의 군량미 상황을 고려한 대안이 연공에서 군량미를 차감하는 것이다.

coohiyan gurun i miyoociyang sindara sain ilan tanggū niyalma be kemuni
tucibufi hūwaliyan i hoton de ibebufi bibukini.

의역: 조선에서 조총을 잘 다루는 조총수 300명을 (병부의 의견)대로 파견하여
(일단) 회령에 가서 대기하게 하라!

허버이암반 회의에서 조총수 파견안을 수용했다. 허버이암반들은 보고 받은 각 지역 우전초하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선 조총수 부대의 파견 요청안을 그대로 동의했다. 다만 판옥선 활용안을 기각한 배경에는 병부가 조총수를 줄일 때와 마찬가지로 포상금이나 보상금 문제와 식량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분석했듯이 1척을 건조하는 데에만 격군과 조선공을 합쳐 최소 128명이 필요하므로 허버이암반들은 이미 자국 내에서 대선 30척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한 상황에서 굳이 추가로 판옥선까지 건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병력 보강계획이 묵던과 허투알라 지역의 대공사로 대선 건조 작업이 연기됨에 따라 같이 연기되는 사이 동북팔기는 끊임없는 러시아군의 남하로

65) 김재근, 1984, 「우리배의 역사 9: 판옥선(2)」, 해양한국, 90-93쪽.

66) 『日省錄』 순조 22년 8월 3일 갑진.

67) 『肅宗實錄』 권40, 숙종 30년 12월 28일 갑오.

인해 시급하게 우전초하의 군대가 필요했다. 이는 다음 해인 1656년에 작성된 어혈리당안을 통해 알 수 있다. 샤르후다는 다음 해 재차 포수와 조총수의 보강을 요청하였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관리인 어혈리가 1656년의 어혈리당안을 작성한 것이다.

meni ubade poo duin bi.. sindara niyalma akū.. miyoociyang sindara niyalma emu tanggū isime. umesi boigon tebume unggireo.⁶⁸⁾

의역: 우리의 이곳에 4문의 포가 있는데 다루는 사람이 없다. 조총을 다루는 100명을 호에 넣어서 보내주시오!

샤르후다는 임시로 동북팔기에 파견되는 조총수가 아닌 주방에 상시 주둔할 조총수 100명을 요청했는데, 이는 동북팔기 내 우전초하의 병력 양성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양성된 병력을 주둔시키고자 한 것이다.

baicaci bangnami nirui jergi miyoociyang sindara uksin be unggici ton i uksin. damu ilan niru be dahame. unggici ojurakū.⁶⁹⁾

의역: 찾아보니 (니루이장긴) 방남의 니루 등 조총를 쏘는 육신을 보낸다고 가정하면 그 수가 단지 3 니루 정도인 점을 들어 (동북에) 보낼 수 없다.

jai ujen coohai fe poošeo duin. ice poošeo duin ere jakūn poošeo be boigon nisihai tebume unggiki sembi..⁷⁰⁾

의역: 또한 우전초하의 늙은 포수 4명, 젊은 포수 4명 이렇게 8명의 포수를 (동북에 주둔할) 호에 이적시켜 보낸다고 했다.

위와 같이 병부는 조총수 파견안을 기각했고, 포수 파견안을 수용했다. 이는

68) 어혈리, 1656, 「題議派漢軍炮手至寧古塔并請朝鮮兵丁教習當地兵丁用鳥槍事」, 北京: 中國第一歷史檔案館, 2쪽.

69) 어혈리, 1656, 앞의 당안, 3쪽.

70) 어혈리, 1656, 앞의 당안, 3쪽.

북경이나 묵둔의 팔기 내 조총수와 포수의 병력 운용 상황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coohiyan gurun i miyoociyang sindara orin niyalma be ningguta de unggifi. emu nirui juwanta uksin de miyoociyang sindame tacibukini. taciha manggi. amasi unggikini. erebe dorolon i jurgan de afabuki..⁷¹⁾

의역: “조선의 조총수 20명을 닝구타에 파견하여 한 니루마다 10명의 옥신들에게 조총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게 한 뒤 (이 옥신들이) 배우고 난 뒤 (이 조총수들을 조선에) 돌려보내겠다”라며 이 (일)을 예부에 맡기자!

coohiyan i niyalma be unggifi miyoociyang sindame tacibukini seme gisurehengge acahakūbi.⁷²⁾

의역: 조선인을 보내어 (동북팔기의 조총수들에게) 조총을 다루도록 가르치게 하자고 한 것은 적절치 않다.

이때 어혈리는 위와 같이 조총수 요청안에 대한 대안으로 조선의 조총수 교관 20명을 통한 양성을 제안했다. 순치제는 최종적으로 포수 파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순치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조선 교관의 파견안은 기각했다.

2. 병력안의 실행과정

1656년 어혈리당안이 승인되고 반년이 지난 1657년 초에 청은 대선 건조안을 실행에 옮길 때 도니당안을 참고하여 병력 동원안도 함께 계획했다. 이때 이 일을 담당할 관리들은 두란과 순타 및 어혈리이었으며 이들이 세운 보강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71) 어혈리, 1656, 앞의 당안, 3쪽.

72) 어혈리, 1656, 앞의 당안, 1쪽.

[표 8] 1657년 두란, 순타, 어혈리의 당안 속 병력 동원안

	두란의 당안	순타의 당안	어혈리의 1657년 당안
군인		(1) 560명 (2) 조선 조총수 300명	(1) 군인 260명 (2) 1문 대포마다 2명의 포수 배치
장기	도니당안과 동일	(1) 비터시 (2) 通事	
물자		(1) 대포(장군포 20문) (2) 묵뎨, 닝위완, 긴주 (3) 조총이나 홍의포(묵뎨, 寧遠, 錦州에서 조달)	(1) 화약 150만근 (2) 1척당 2개의 돛 (3) 대나무, 노, 새끼줄

이 계획 속 수군은 대선 건조가 끝나는 1658년 초에 동원하기로 예정되었고 그 사이 1657년에 상견오흑 전투가 발생했다. 중국 학자들의 연구에서 해당 전투에 동북팔기의 수군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는데, 이 수군이 동북팔기 자체 내 수군인지 아니면 미리 파견받은 수군인지 알 수 없다.⁷³⁾

청은 변경된 호선의 건조안이 끝나가는 시점인 1658년 초에 1657년 병력 보강안에 따라 남방의 팔기와 조선군을 차출했다. 당시 청은 1657년 안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사천 지역에서도 군대를 차출했는데,⁷⁴⁾ 이는 사천성 重慶 지역에서 농성 중인 張獻忠(1606~1647)의 잔당들과 청군 사이의 장기전이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⁷⁵⁾

이때, 청이 자국 내에서 차출하는 우전초하와 조선으로부터 파병받는 조선군 내 병종을 살펴보면, 조총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앞 장에서 언급한 대선에서 호선으로의 전선 건조 계획 변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 호선 위에는 설치할 수 있는 대포의 수가 적으므로 청의 동북팔기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수군의 주력을 조총수로 하였다.

다만 명중률 문제로 조총수 중 조선군의 조총수들이 선봉 역할을 맡았다. 배

73) 趙展, 1980, 「尙堅烏黑今地考」, 『學習與探索』; 包長華, 1996, 「尙堅烏黑今地考」, 『佳木斯師傳學報』.

74) 『北征錄』 1658년 5월 17일 기사.

75) 『明史』 列傳第一百九十七 「流賊傳」.

위에서의 사격은 강물로 인한 흔들림을 고려해야 하므로 육상에서의 사격보다 그 난이도가 높았다. 그래서 동북팔기의 지휘관들은 파견 나온 조선군의 조총 試放을 꼼꼼히 살펴보았다.⁷⁶⁾ 이때, 조선군이 높은 명중률을 나타내자 샤르후다는 조선군을 여러 전선에 분산시켜 배치 뒤 선봉군의 역할을 맡겼다.

한편, 대선에서 호선으로의 변경을 통해 당시 동북팔기 내 격군이 부족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 시기 정크선은 돛을 통해 바람을 타는 방식으로 운행되었지만, 격군이라 불리는 노 젓는 군인들을 통해 속도를 높이기도 했다. 동북 지역에서 청의 노 젓는 군인들은 주로 격군이 아닌 일반 백성이나 죄인들로 이루어진 수부이었는데 이 점은 동북 지역의 한인이나 청의 수사영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여러 연구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송화강-흑룡강 전투에서 이러한 청의 전선 건조안과 그에 맞춘 병력 보강이 승기를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전투는 송화강 전투와 마찬가지로 양군 모두 열병기를 앞세운 수전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조선 조총수의 화력을 통해 러시아 수군 내에서 다수의 전사자가 발생함에 따라 승기가 청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다만 이때 샤르후다는 러시아군이 차르에게 조공하기 위해 모아둔 동북 지역 토산품에 욕심을 내면서 백병전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전초하와 조선군의 조총수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⁷⁷⁾ 이 전투 이후 청은 분쟁 초기 승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송화강-흑룡강 전투의 결과와 그동안 진행한 수군 보강안, 이에 맞선 러시아군이 겪은 경험 등은 이후 청의 수군 창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러시아의 해군 창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우선 청은 이때의 경험으로 동북 지역에 수군을 정식으로 설치할 필요성을 느껴 소강기에 수군 창설 계획을 세우고康熙帝(재위기간: 1661~1722)가 이를 실행에 옮겨 남방과 북방에 각기 해군 기지인水使營을 건설한 뒤 정식으로 수군을 창설했다.

러시아는 대북방전쟁(1700~1721)으로 말미암아 해군 창설했지만, 그 이전부터

76) 『北征錄』 1658년 5월 21일 기사.

77) 『北征錄』 1658년 6월 10일 기사.

해군 창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건 중 하나가 이 청과 러시아 간의 분쟁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차르 표트르대제(재위기간: 1682~1721)는 대북방전쟁에서 승리하여 스웨덴과 뉘스타드 조약(1721년)을 맺어 발트해와 흑해에 부동항을 지을 지역을 확보하게 되고 나서야 러시아는 1703년 정식으로 근대식 해군을 창설했다. 비록 러시아의 해군 창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대북방전쟁이지만, 해군 창설의 필요성을 청·러 국경분쟁을 통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청·러 국경분쟁 초기의 판세는 수전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이 수전에서 동원된 양국의 수군이 가진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정식적인 해군 창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 청의 수군이 가진 한계점은 전선과 전선 위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병력 문제였는데, 양국 모두 분쟁 초기가 끝날 때까지 자국 내 지원 문제나 각기 다른 국경의 전쟁 문제 등으로 이 수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청은 이런 상황속에서도 먼저 전쟁이 끝나가는 서남쪽의 우전초하를 차출하고, 조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함에 따라 분쟁 초기 승기를 거머쥘 수 있었고, 종전 직후 동북팔기에 정식으로 수군을 배치하는 작업에 돌입하여 강희 연간 초에 실행에 옮겼다. 이와 달리 러시아는 비록 똑같이 해군 창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으나 18세기에서야 정식으로 해군을 창설했는데, 이때는 이미 청·러 국경분쟁이 종전되고 한참 뒤의 일이었다. 이렇듯 초기 전황에 대한 양국의 분석은 비슷했으나 차후 양국이 얼마나 후속 조치를 빨리했는지가 후기의 전황에 영향을 미쳤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러 국경분쟁 초기 청과 러시아 양국의 수군 활동과 변화를 전선과 수군 병력 이 두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분쟁 초기의 전투 양상을 살펴보면 수군의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그동안의 분쟁 초기 연구는 가장 먼저 자료

를 공개한 러시아와 한국의 자료를 참고한 청·러 육군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분쟁 초기 청 정부의 대응 특히 동북 지역 수군의 보강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10년대부터 중국의 중국제일역사당안관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중 본 연구는 이 당안관에서 2024년까지 공개한 동북 지역의 수군과 관련된 당안을 참고했다.

제2장에서는 동북 지역 청 수군 내 전선의 문제와 보강에 관해 분석했다. 닝구타 암바장긴 샤르후다는 수군이 투입된 송화강 전투(제1차 나선정벌)부터 청 수군의 전선이 크기와 기동성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1655년 이 문제를 신군왕 도니를 통해 중앙에 보고하여 보완하고자 했다. 이는 중앙의 병부와 허버이 암반들의 논의를 거쳐 대선을 건조하기로 했다. 이때, 샤르후다와 병부는 조선을 통해서도 전선을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이 논의는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한 허버이 암반들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 1655년의 대선 건조안은 같은 시기 동북 지역 내 다른 토목사업으로 인해 연기되었다가 1657년 초에 손타와 두란, 어혈리의 관리하에 실행에 옮겨졌다. 이 건조안은 1658년에 한인 관료 위주조에 의해 호선 건조안으로 변경되었고, 이때 건조된 호선은 곧 같은 해 5,6월 송화강-흑룡강 전투(제2차 나선정벌)에 활용되었다.

제3장에서는 동북 지역 청 수군 내 수군 병력 문제와 병력 보강에 대한 문제를 분석했다. 수군 병력 계획안은 건조안에 따라 변화했다. 청은 도니당안을 통해 대선 건조안을 계획되었을 때 이에 맞춰 많은 우전초하 병력을 동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으나 남방의 전황으로 인해 이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청은 그 대안으로 조선군의 차출이 함께 논의했다. 이후 1656년에 동북 지역 우전초하 병력의 보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 중 포수 보강안은 수용되었으나 조총 보강안에서 동북지역 지휘관과 병부, 황제 사이에 견해차가 커서 수용되지 않았다. 이 후 1657년에 두란, 순타, 어혈리의 동북 지역에 대한 병력 지원 논의를 거쳐 같은 해 동남의 해금령과 서남의 전황 변화, 1658년 초 위주조의 호선 건조안을 참고하여 동북 지역의 청 수군은 조총수를 주축으로 편제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부족한 조총수는 도니당안 때 논의를 참고하여 조선을 통해

해결했다. 이 계획에 따라 청 내 다른 지역과 조선으로부터 차출된 병력은 1658년 5월에 닝구타에 집결하여 송황강-흑룡강 전투에 참전했다.

분쟁 초기 러시아 수군의 남하와 이에 대응한 동북 지역 청 수군의 편제 변화는 분쟁후기의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 청은 분쟁 초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소강기에 정식 수군 부대 즉 수사영을 동북 지역에 창설함에 따라 이는 분쟁 후기 청의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달리 러시아는 해군의 필요성만 제기될 뿐 부동항 문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18세기 초 항구 문제가 해결되는 대북방전쟁 때에서야 본격적으로 해군 창설이 진행했다.

이렇듯 본 연구는 분쟁 초기 전환에 청과 러시아 양국 수군의 활동과 편제 변화의 영향이 컸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보강했다. 특히 이 시기 청 내부의 청 수군에 대한 논의와 보강 과정에 관한 연구가 미약하였는데 이를 최근 중국제일역사당안관에서 공개한 분쟁 초기와 관련된 당안 자료를 통해 보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기존의 러시아군과 조선군의 연구 위에 이 연구를 더 하여 분쟁 초기를 더 세밀히 분석할 수 있었고, 나아가 수군을 통해 분쟁 초기와 분쟁 후기의 연결성까지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청·러 국경분쟁 초기는 단순히 청과 러시아가 만주라는 특정 지역을 두고 처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끝난 것으로 그친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 분쟁 초기는 분쟁 후기와 연결되어 훗날 현대 중국과 러시아의 중·소 국경분쟁으로 이어지는 그 始發點에 해당하는 중요한 역사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사료

『北征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明史』

『寧古塔紀略』

도니, 1655, 「題爲羅刹入境侵擾請派官軍進剿事」, 北京: 中國第一歷史檔案館(檔案號: 02-02-019-001251-0027)

佟國器, 1655, 「提報本省軍官進剿鄭成功交戰情形事」, 北京: 中國第一歷史檔案館(檔案號: 02-02-019-001250-0032).

어혈리, 1656, 「題議派漢軍炮手至寧古塔并請朝鮮兵丁教習當地兵丁用鳥槍事」, 北京: 中國第一歷史檔案館(檔案號:02-02-019-001252-0010).

衛周祚, 1658, 「提報核查寧古塔修造大船用過木料等項數目事」, 北京: 中國第一歷史檔案館(檔案號: 02-02-035-002543-0050)

2. 논문 및 저서

구범진, 2019,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 까치 출판사

김재근, 1989, 『우리 배의 역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재근, 1996, 『우리배』, 서울대학교 출판부

松浦茂, 2006, 『清朝のアムール政策と少数民族』, 京都大學學術出版會

제임스 포사이스 저, 정재겸 역, 2009, 『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 솔 출판사

陳鵬, 2018, 『清代東北地區“新滿洲”研究(1644-1911)』

피터 C. 퍼듀 저, 공원국 역, 2012, 『중국의 서진: 청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사』, 길 출판사

Fairbank, John K, 1974, “*Chinese Ways in Warfare*”, Harvard University Press

Hucker, Charles O.,1974, “*Hu Tsung-hsien’s Campaign Against Hsu Ha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박지배, 2018, 「17세기 중반 러시아의 동북아진출과 ‘나선정벌’의 의미」, 『歷史學報』 240

송인주, 2018, 「清朝의 順治~康熙年間 黑龍江 유역 통합과정과 ‘吉林將軍體制’의 성립: 샤르후다-바하이 부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No. 50

이훈, 2018, 「17세기 중엽 청-러시아의 충돌과 흑룡강 유역의 부족민」, 『열상고전연구』

65

이훈, 2018, 「1635년 후금의 와르카 공략」, 『동양사학연구』 142

祁今馨, 2019.12, 「黒龍江漢軍の成立と拡充について」, 『近現代東北アジア地域史研究会News Letter』

윤욱, 2023, 「淸의 對러시아 政策의 起源, 1644-1676」, 『역사와 세계』 64

홍은, 2023, 「多尼당안으로 본 청-리 국경분쟁 초기 전황과 청 조정의 결정」, 『만주연구』 35

투고일: 2025년 3월 30일 심사완료일: 2025년 4월 14일 게재확정일: 2025년 10월 24일

■ Abstract ■

Maritime Forces of the Qing Dynasty in the Early Sino-Russian Border Conflict

Hong eu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hile the early Sino-Russian border conflict has been widely studied, compar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Qing Empire's maritime forces. This study examines the organization and development of these forces in the northeastern frontier during the initial phase of the conflict, when clashes between Qing and Russian troops occurred along the river and coastal routes of Russia's southward expansion.

Newly released documents from the First Historical Archives now make it possible to reassess the Qing Empire's maritime defenses in the northeastern frontier during the early Sino-Russian border conflict. Using these documents alongside existing records, this study reconstructs how the Qing organized and restructured its maritime forces in response to Russian expansion. It focuses on two key aspects: the implementation of the wire-construction plan and the reinforcement of fleet capacity. In the northeastern command, authority initially rested with the *Manju gūsa* and *Solon gūsa* units but gradually shifted toward a system led by the *Ujen Cooha* (漢軍八旗). This transition illustrates how reforms within the maritime forces of the period helped the Qing consolidate its control over the frontier and adjust its strategy in response to Russian advances.

Key words: Qing maritime forces, Sino-Russian border conflict, First Historical Archives, *Ujen Cooha* (漢軍八旗), Qing-Russian relations